

도로 사정 좋아진다

시당국 2백만달러 긴급 투입

시당국이 최근 많은 비가 온 뒤에 상태가 나빠진 호놀룰루 지역 도로를 재단장하기 위해 긴급 도로보수공사 기금 2백만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호놀룰루 주요 도로는 비가 내린 후 곳곳이 움푹 파이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며 운전자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시당국은 이에 따라 긴급 도로보수비 2백만달러를 사용해 호놀룰루 주요 도로를 먼

저 단장하고, 차차 주전역의 도로를 대상으로 보수공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사대상이 되는 도로는 카피올라니와 알라와이 블러버드를 비롯해 베레타니아, 킹스트리트 등 동서간 도로와, 파이코이, 펜사플라 스트리트, 몬사렛 애비뉴등의 남북방향 도로 등 주요도로가 모두 포함된다.

도로 보수공사는 보통 디자인과 입찰과정을 거쳐 계약을 한 이후 시작되기 때문에 통

상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면 1년 이상이 걸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긴급성을 감안해 시당국이 각 입찰 건설사로 하여금 직접 도로상태를 점검하고 보수비용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빠른 공사가 19일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당국은 빠른 공사진행을 위해 가능한 야간공사와 혼잡한 시간을 제외한 주간공사를 병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용우기자>

이노우에 연방상원 항모 하와이 유치 노력

하와이 출신의 대니얼 이노우에 연방상원의원은 "하와이에 항모모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0년간 10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리적으로 하와이가 미국 내 다른 지역보다 항모 주둔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연방상원 국방소위원회 소속의 이노우에 의원은 샌디에고나 괌 등이 항모주둔에 적극적인 가운데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하와이가 항모 주둔에 가장 적합하다는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모를 하와이에 유치하려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항모를 기지로 삼는 70~80대의 전투기를 여기에 주둔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노우에 의원은 전 바버스 포인트 해군항공기지를 후보지로 꼽고 있다.

이노우에 의원은 특히 핵을 보유한 인디아와 파키스탄이 갈등을 겪고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관계가 험악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테러리스트가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하와이가 항모 주둔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의회도 한반도 해안일주 관심

이재권, 조나단 코올즈씨 26일 주의회 공청회 참가 북해안 일주지지 호소

하와이 주정부가 한반도 해안일주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법안을 상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조나단 코올즈와 이재권씨의 북한해안 항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6일 주정사에서는 데니스 아라카키 등 주하원 의원들과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올즈씨의 북한해안 항해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재권씨와 조나단 코올즈는 북한방문과 해안항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주하원은 이를 통해 지원예산 등을 포함한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미 린다 링클 주지사도 이번 안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권씨는 주정부에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

싱턴으로 달려가 롤린 파월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항해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길이 5m의 자그마한 목선 하나로 60일간의 한국해안 항해를 무사히 끝마친 이재권씨와 조나단 코올즈는 분단역사상 최초로 남북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은 북한해안 일주에 도전장을 냈다(본보 1월6일자 참조).

현재 하와이를 방문 중인 두 사람은 주정부와 각계 인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 하와이 최대 노조연합인 '로컬 파이브'와 하와이

교원협의회(HSTA)로부터 지지서를 각각 받아들였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이재권씨와 미 시민권자인 조나단 코올즈는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선 한국 통일부의 승인 외에도 미 국무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두 사람은 모든 절차가 끝나면 서류를 북한에 보내고 북한측이 평화정책의 일환으로 방북 초청장을 보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권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획은 7천만여명의 평화통일 염원을 가슴에 품고 한미 두 나라의 공조로 이뤄지는 첫 북한해안 항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인 북한해안 일주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한 몫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조기자>

밀릴라니 이케 초등학교 개교 학교시설 부족 여전

밀릴라니 이케 초등학교가 14일 개교함으로써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던 인근 초등학교의 짐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밀릴라니 지역은 학생들에 비해 아직도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릴라니 이케 초등학교는 개교와 함께 인근의 밀릴라니



지난해 한국축제 현장에서 한국으로 부터 온 무용단이 부채춤 공연을 하고 있다. <본보 자료사진>

"내일은 한국축제 가는 날" 17, 18일 한국축제 각종 공연 일정 안내

17일(토)

오전9시(1부) ▲하와이 한인농악단의 농악한마당과 ▲장수대학의 부채춤 ▲한라함의 장고춤, ▲정은선무용단의 화관무, ▲명우단의 살풀이, ▲춤사랑의 소고춤 등 하와이한인공연팀의 힘찬 무대로 막이 오른다.

이어 오전 11시30분(2부)에는 ▲로얄하와이안밴드의 축하연주와 함께 ▲제레미 해리스 호놀룰루시장의 개막연설과 하와이한인상공회의소의 시상식이 있다. 이어 ▲임은주 무용단의 태평무와 ▲경기소리보존회의 금강산 타령, ▲남사당의 장고춤 등 본국 공연단의 특별무대가 연출된다.

또한 본국의 인기연예인 ▲허준호씨의 팬사인회에 이어 오후2시30분(3부)부터는 ▲라틴과 타히티댄스, ▲김옥란 국악인의 가야금 평창, ▲퍼시픽 군아트센터의 태권도시범, ▲어린이(KIIDS Dance Company)들의 케이아홀라댄스 등으로 이어진다.

그 뒤를 이어 본국 공연단

새 이민100년 첫 발을 내딛는 원년을 축하하는 제3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17일과 18일 오후 카피올라니공원과 24일 마우이에서 3차례 개최된다. 소니오피노 미틴 루터킹 연휴와 맞물려 열리는 제3회 한국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주치인내를 참조해 이번 주말 온 가족이 함께 한국축제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의 두번째 특별무대가 다시 오른다. ▲경기소리보존회의 방가타령 등과 ▲임은주 무용단의 사랑가와 부채춤 등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 ▲판소리와 ▲김향순 국악인의 심청가 등으로 계속 이어진다.


18일(일)

오전9시(1부) ▲남사당패의 사물놀이와 장고춤으로 막이 오른다. 이어 ▲태권도 시범과 ▲중국공연팀의 사자춤이 공연되며 이후 ▲경기소리보존회의 금강산타령과 밀양아리랑, ▲하와이공연팀의 홀라댄스가 펼쳐진다. 오후12시(2부)에는 ▲듀크 아이오나 부주지사의 축하메시지와 허준호 팬사인회가 있을 예정이며 ▲오키나와공연팀과 ▲남

행사장 주차안내

17일과 18일 카피올라니공원의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 준비위원회측은 관람객들이 카피올라니커뮤니티칼리지(K.C.C.)의 무료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료 셔틀버스는 행사일 동안 수시로 카피올라니공원과 KCC를 운행한다. <김현조기자>

보리암 · 해련보살
 미래를 알면 행복을 앞당길 수 있고 불행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봐도 담당하신 분 생각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는 분 친신제가 해련이가 친의 영통함으로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 955-9793(01) 780-2913(02)



마우이 초등학교에서 6백50명이 전학을 왔다.

그러나 1천3백명의 재학생이 있는 밀릴라니 마우카 초등학교는 여전히 정원보다 50%를 초과하는 상태라는 것. 학교측은 이동식 임시 교실

을 마련해 학생들을 수용하고는 있지만 최근 신 주거지역 떠오르고 있는 밀릴라니 지역의 인구증가 속도를 공립학교나 기타 편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THIS PUBLICATION INCLUDES FINAL EDITION A1 KOREAN NEWS B1 WEEKLY MAGAZINE(SAT OR SUN)

www.koreatimeshawaii.com

2004년 제 3 회

코리아 페스티벌

드라마 "올인"과 영화 "실미도"에 출연한 허준호 사인회

태마 : 새로운 세기의 시작

로컬 공연단

- 명우단
- 장수대학
- 정은선 무용단
- 춤사랑
- 하와이 한인 농악회
- 할라함 무용 연구소
- US 태권도센터
- Pacific Martial Arts Center
- Kiffman 태권도 센터 (마우이)
- 아리랑 무용 연구소 (마우이)

본국 공연단

- 경기소리보존회
- 임은주 무용단
- 가람무용단
- 신 드레스 샵
- 남사당패
- 남도 명창
- 김옥란, 김향순

외국인 공연단

- Royal Hawaiian
- BandLatinKIIDS
- Chinese
- Okinawa
- Brazilian
- Hawaiian
- Tahitian
- Hula
- 태판스

전시회

- 봉산탈춤 만들기
-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광주국제영화제, 광주김치페스티벌, 광주비엔날레)
- 보성군 (녹차 및 관련제품 판매)
- 담양군 (대나무잎차 및 관련제품 판매)

쿠킹쇼

- 대통령상 수상한 명선현 최인순씨 (보쌈김치)
- 고향떡집 (인절미)

Honolulu Food Booth Vendors

- Boba-Loca Hawaii
- Marians Catering
- K Restaurant
- Elim Two Restaurant
- Ko Hyang Duet Jip
- Super Chef Gourmet
- Sushi Supreme
- Kaffee Imperial
- Queen Supermarket
- Lily's Korean BBQ
- Osaka Restaurant / Chosun Cafe
- E-Topia

Honolulu Product Vendor

- Queen's Supermarket
- Assi Bang Gift Center
- Morning Glory
- Hana Antique Furniture
- Healthville Hawaii
- Beauty TouchKorean Airline
- Dae Han Automotive

Maui Product Vendor

- Maui Hana
- Morning Glory
- Joy's Gift Shop
- Hawaii Commercial Foods
- K's Gift Shop
- Asian Market
- Khadim & Designer
- Amore Gift Stop

Maui Food Booth Vendor

- Kaiona Cafe
- Home Made Cafe
- Isana Restaurant
- Young's Kitchen

하와이 고급주택 매매 '불티'

1백만달러이상 주택 거래 2003년 전년대비 54%증가

지난해 하와이에서 1백만달러를 상회하는 고급주택이 259채 판매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와이 최대 부동산 업체인 콜드웰 뱅커 퍼시픽 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하와이에서 거래된 1백만달러 이상의 고급주택 판매건수는 2002년도의 168건보다 54% 상승한 259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본토의 경우 2002년 중반기부터 2003년 중반기까지의 1백만달러 이상되는 고급주택의 판매 증가율이 8.2%를 기록했으나 하와이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고급주택 판매가 266건에서 360건으로 늘어나 약 35%의 증가를 보여 하와이의 고급주택시장이 본토의 고급 주택시장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급주택의 구입은 부동산 가치의 상승, 부유층의 수요,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해 하와이에서 비싼

주택을 구입한 구매자로는 일본의 억만장자 겐시로 카와모토로 카할라 애비뉴에 위치한 주택을 8백만달러에 구입했으며 캘리포니아 베버리힐스에 있는 구매자는 9백만달러에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1월의 신축 주택 판매는 189건으로 2002년도 11월 155건보다 22% 증가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성운기자>

KAL 호놀룰루지점 조국안보부 관계자 초청 신년 기념식 설명회

대한항공 호놀룰루지점(지점장 이진걸)은 13일 조국안보부 산하 조직인 이민국, 세관 및 농무성 직원 10여명을 초청하여 신년 기념식 설명회를 가졌다.

대한항공은 3,6,9,12월 연 4

회 기념식 메뉴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였으나 지난해 9월 메뉴를 1개월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메뉴는 올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진걸지점장은 이날 기념식 설명회 참석자들이 한국 관광객을 직접 상대하는 인사들이란 점을 감안하여 현재 활발히 추진중인 하와이 무비자 운동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운기자>



하와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제28회 하와이 중소기업 컨퍼런스가 14일 알라모아나 호텔 하이커스룸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린다 링글 주지사가 올해 비즈니스 전망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종교이민 비자심사 강화 국토안보부 지침서 공개

종교단체 자격심사 기준 엄격

종교 관련 직종 종사자의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 미 국토안보부(DHS) 시민권·이민서비스국(CIS)은 지난해 12월17일 각 지부에 행정 지침서를 하달, 종교이민 프로그램 연장 확정 사실을 알리고 관련 비자 및 이민 신청서류를 심사하는데 있어 심사관이 참고해야 하는 종교단체들의 면세 자격 가이드라인을 확정지었기 때문이다.

CIS가 13일 공개한 지침서에 따르면 CIS 각 지부는 종교근로자특별비자(I-360)과 비이민종교근로자(I-129) 신청서류를 심사하는데 있어 해당 신청자의 고용주인 종교단체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지침서는 이들 특별이민, 또는 비이민 종교근로자 신청서류와 관련, 고용주가 비영리 종교단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방 세무법(IRC) 501(c)(3) 규정에 따라 단체가 종교단체로서의 면세혜택이 부여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세청(IRS)의 편지, ▲집단(Group) 면세혜택이 부여된 종교단체일 경우 IRC 509(a)(1) 규정에 따른 단체이며 면세혜택이 IRC 501(c)(3)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국세청

(IRS)의 편지, ▲IRS로부터 비영리 종교단체임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한 관련 서류 등을 접수, 참고토록 지시하고 있다.

지침서는 이외에도 심사관이 종교단체의 성격과 목적을 파악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소한 ▲완성된 IRS 1023 서류, ▲해당될 경우 완성된 스케줄 A 추가 서류, ▲IRS가 요구한 단체의 설립과 목적 증명서류 등 IRS 관련 서류와 종교단체로부터 소개서, 달력, 안내집단 등 단체의 종교적 목적과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접수,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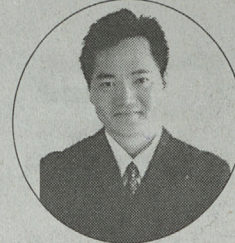
CIS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한 이민변호사가 3,500여건의 종교이민 사기를 주도한 사건을 비롯,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비자격 스폰서, 허위서류, 위조서류 등 특별종교이민·비이민 종교근로자 신청서류와 관련된 각종 위법 행위가 자주 적발됨에 따라 심사 과정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성직자를 제외한 종교 관련 직종 종사자의 이민 프로그램은 지난해 9월30일 만료됐으나 같은해 10월15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동 프로그램을 10월1일로 소급 적용, 2008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을 발표시킨 바 있으며 연간 5,000개 영주권 발급 제한이 주어졌다.

<미주본사>

방위성 변호사의 법률 칼럼

렌트 못냈을 경우의 특별소송 (Summary Possession)



보통 민사소송 케이스들은 피해액수 2만달러이상의 문제들은 순회법원(Circuit Court)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고소장이 등록되고 재판날짜를 받기까지는 1년에서 3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렌트를 못내어서 발생하는 케이스의 고소건은 모두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이유는 집주인 또는 땅 주인이 렌트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피해를 즉시 정리해 주기 위해 재판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예를들어 보통 순회법원의 고소장을 받고 답장을 제출하는 시간은 20일이라는 날짜를 주지만 렌트관련 케이스는 5일내에 법원이 답장을 등록시켜야 한다. 그리고 렌트관계 케이스는 보통 1주일정도 기간에 재판날짜를 받는다.

예를들어 렌트를 내지 못한 액수가 3만달러라고 하면 피해액수가 2만달러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케이스들은 순회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렌트관계의 소송이기 때문에 지방법원에서 이 케이스는 꼭 재판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쪽은 특별히 방어할 방법이 없다.

보통 2주안에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고 판결이 나면 집주인에게 3만달러를 갚아 주고 렌트장소도 즉시 비어주어야 한다. 렌트 관련 소송을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약 프로그램 위한 '세금인상 없다'

속칭 '아이스'로 불리는 크리스탈 메탐페타민을 단속하거나 치료하는 마약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회는 마약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주 상하의원들 18명으로 특별법을 구성하고 프

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금인상 등을 고려했으나, 2천1백60만달러의 예산 마련을 위해 세금인상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멜로디 아두자상원의원은 마약퇴치 예산마련을 위해 예비비나 비상자금, 허리케인 기금, 또는 담배회사 보상을 사용하는 안 등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슬 교차로 산사태 방지공사 시작

주요통국은 캐슬 교차로 지역의 산사태 방지공사가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칼라나나올레 하이웨이 시내방향 차선중 쿠아리 로드에서 캐슬 교차로까

지의 일부구간이 아침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차선 변경 된다.

차선변경 시간은 평일 오전 5시30분에서 6시45분까지이며 주공휴일은 제외된다. 7백80만달러가 소요되는 이번 산사태 방지공사는 5월이나 6월경까지 지속될 계획이다.

방위성 변호사 직통전화 599-5199

유일·강력·정확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 방위성 변호사는 명문대인·최고의 최우수 AV 평점을 가지고 도와드립니다.

성공·소송·중재·협상·시정·부동산·리스·건축·고용·관세·회사법·프랜차이즈·자동차 사고·모든 피해 보상·이혼과 재산분할·시정/특수 이민·비자·영주권·시민권

한국일보 하와이지사

발행인 장재민
사장 전성환
지사장 직무대리 이영호
편집국부장대우 신수경

대표전화 (808) 955-1234
FAX (808) 946-9637

▲ 편집국 기사제보 (808) 955-2292
▲ 광고국 (808) 955-2293
▲ 독자부 (808) 955-2294
▲ 라디오서울 (808) 955-2295

1839 S. King St.
Honolulu, HI 96826

"THE KOREA TIMES HAWAII"
(ISSN 08843139)
is Published Daily (except Mondays and the Days after Federal holidays) by THE KOREA TIMES HAWAII 1839 S. King St. Honolulu, Hawaii 96826. Subscription fee is \$16.50 per month. Periodicals Postage Paid at Honolulu Hawaii.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 TIMES 1839 S. King St. Honolulu Hawaii 96826.

에반 도벨 하와이대 총장 업무평가 '대외비밀'

에반 도벨 하와이대학교(UH) 총장에 대한 업무평가 내용이 베일에 쌓일 전망이다.

하와이대 평의회는 15일 열리는 회의에서 도벨 총장의 연례 업무평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회는 지난달 다음 1월 회의에서 도벨 총장의 평가 보고서에 대해 거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도벨 총장이 자신의 평가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보인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평의원들의 말에 따르면 도벨 총장이 만약 자신의 평가 내용이 일반에 유출될 경우 법적인 대처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UH의 켈론 타나가 대변인은 "현재 도벨 총장이 개인사유로 이번 의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16일 본회의에 도벨 총장이 참석해봐야 이번 평가보고서에 관한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정부행정국(OIP)에서 도벨 총장의 평가내용 복사본을 하와이대 평의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UH 평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도벨 총장의 연례평가 복사본을 OIP에 제출할지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조기자>

TODAI Sushi & Seafood Buffet
Restaurant
Since 1985

정통 일식 부페 토다이

40가지 이상의 스시
핫푸드와 우동 코너
샐러드와 디저트

생일을 맞으신분 당일 무료식사 제공

- 생일당사자와의 2인 동반에 한함
- Valid ID지참 요구

1910 Ala Moana Blvd.
(Corner of Ala Moana & Ena Road)
Across from
Hilton Hawaiian Village
808.947.1000

888-55-TODAI www.todai.com

토다이 건너 밀레코어 호텔 주차빌딩에 2시간 까지 무료주차 이실 수 있습니다.

California: Arcadia, Beverly Center, Cerritos, Concord, Cupertino, Daly City, Glendale, Orange, Pleasanton, Puente Hills, San Jose, San Diego, Studio City, Woodland Hills
Other Locations: Houston (TX), Las Vegas (NV), Phoenix (AZ), Plano (TX), Portland (OR), Redmond (WA), Schaumburg (IL), Tampa (FL), Hong Kong
Future Locations: Fairfax (VA), White Plains (NY), Seattle (WA)

*Menu, prices, hours & Special offers subject to change w/o prior notice. Certain restrictions may apply to special offers.